2020년도 상반기 소식지

KARF 치료공동체 since 2005

가능성
possibility

http://www.karftc.or.kr

CONTENTS

01 직원의 회복 글

02 회원들의 회복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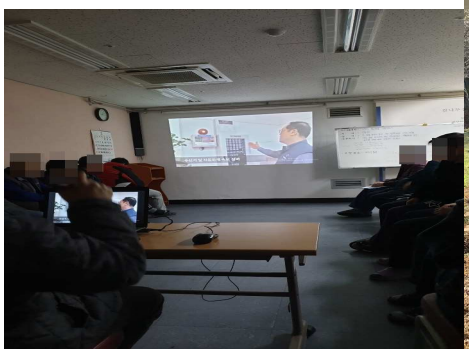
03 2020년 상반기 만족도조사 결과

04 자원봉사 안내

05 2020년 상반기 후원보고-1

06 2020년 상반기 후원보고-2

07 후원안내



KRAF 치료공동체 감나무집은 대한민국 수도를 관활하고 있으며, 모진 박해 속에서도 복음전파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알코올 의존자 전용 사회복귀시설로서 치료공동체 환경을 통하여 가족관계,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 및 영성의 성장 등을 도움으로써 알코올 의존자가 단주를 유지함과 함께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 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 주체로서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중독연구재단**이 이 땅을 알코올로 인한 폐해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

내가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잡이가 되라

매일이 우리 선생님들과 시트콤을 찍는 것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개성 강한 선생님들과의 일상 속에서 웃고 때로는 시끌벅적 하면서 의미 있는 날들의 연속을 살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환경에서 일생을 살아온 우리 모두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서로의 거울이 되고자 힘들고 불편하지만 하루에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알콜중독자가 술을 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영적성장을 꾀할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책에서는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잡이가 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경험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합니다.
신비로운 경험이 술만큼이나 좋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좋아하는 책에서 소개하고 싶은 글귀입니다.

모든 상처에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우리를 치료하는지도 모른다. 상처는 우리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 준다. 돌아보면 내가 상처라고 여긴 것은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과 다르지 않았다.
삶의 그물망 안에서 그 고통의 구간은 축복의 구간과 이어져 있었다. '축복(blessing)'은 프랑스어 '상처 입다(blesser)'와 어원이 같다.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말아야 한다.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파도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무슨 일이든 나쁜 일이 없다는 것을 알면 불평, 불만, 화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도 유연해지지 않을까?
너무 애쓰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삶이지 않을까?일어난 일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고 다음단계의 인생을 산다면
매일이 행복하지 않을까?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정말로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당장의 결과가 나중의 다른 결과의 원인이 된다는 '새옹지마'의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은가!!
붙잡고 늘어지는 삶이 아닌, 놓아주는 삶을 살아갈 지혜를 갖길.
세상이 자신을 매장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파종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자신이다.
파종을 받아들인 다면 불행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 조리사 김소영 -

비참한 삶에서 다시 시작하기

2018년 5월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비참한 나날들.....
외롭다는 단어 그리고 우울증으로 폐쇄된 공간에서 술로 보낸 날들
술에 찌들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 채 깊고 깊은 수렁에 빠진 날들
그리고 병원응급실로 실려 가던 날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간경화란 진단을 받고 퇴원 후 또 술로 지낸 날들 술에 취해 목욕탕에서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야 이제 그만 마셔야 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병원에서 14개월 생활하면서 자살만 생각하던 나였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감나무집의 소개프로그램을 듣고 감나무집 입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맨처음 입소 후 과연 내가 우울증과 음주습관을 버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루 하루가 지나면서 조금은 맑은 정신으로 회복되어 가는 느낌이 들었을 때 나에겐 감나무집이라는 울타리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나무집에 입소한지 벌써 9개월 내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했는지 조금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업재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술로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 원장님과 국장님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이제 어떤 유혹도 부리치고 회복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 회원 박00 -

감나무집 공동체에서의 깨달음

유민아빠! 술좀 그만 마셔!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동네 슈퍼로 가 술을 사고 아내에게 들킬까봐 동네 화장실로 가서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 가정을 지켜야 할때면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네 사람들과 아침 5시부터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성가복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수녀님의 소개로 감나무집에 입소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환경, 20명 넘는 회원들과의 동거동락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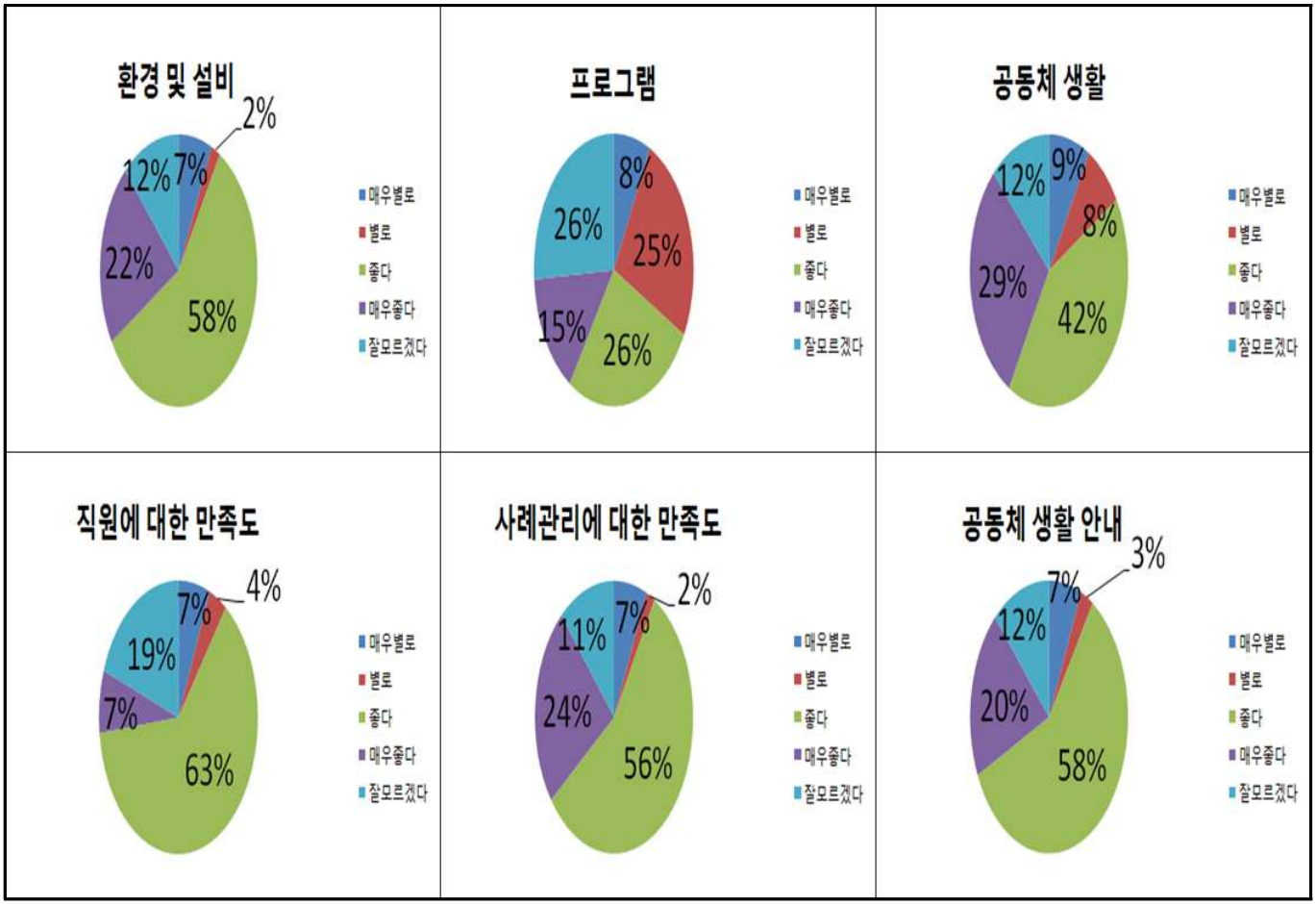
지금은 감집에서의 3개월 차 이제는 우리 가정의 소중함이 알게되었으며, 지나온 삶을 후회하고 이제부터라도 저의 아내와 아들에게 더 좋은 아빠와 남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 회원 김00 -

2020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 진행 결과

2020년 감나무집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하반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만족도 조사는 총 6개 영역으로, 환경 및 설비, 프로그램, 공동체 생활, 직원에 대한 만족도, 사례관리에 대한 만족도, 공동체 생활 안내로 진행하였습니다.

영역 및 척도	매우별로	별로	좋다	매우좋다	잘모르겠다.
환경 및 설비	7%	2%	57%	22%	12%
프로그램	8%	25%	26%	15%	26%
공동체 생활	9%	8%	42%	29%	12%
직원에 대한 만족도	7%	4%	63%	7%	19%
사례관리에 대한 만족도	7%	2%	56%	24%	11%
공동체 생활 안내	7%	3%	58%	20%	12%



Thanks to..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명 단	이 미 용	김순란 / 채명애
	회복자 세미나	연남동 이
	회복프로그램	이명수
	일일봉사자	김용식(빵나무집 대표) 권형준(리치몬드 제과점) 라망베이커리 강정환 선생님 (프로그램 보조)
	모집대상	봉사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대학생 성인
	활동내용	부서업무지원(주방봉사 등) 환경정비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지원 운전봉사 행정업무지원 기관안전점검 등
자원봉사 활 동 및 안 내	활동시간	월 ~ 금 / 09시~18시(시간조정가능) 주말봉사 / 시간 조정하여 가능
	신청방법	메일접수 (karftc2005@hanmail.net) 홈페이지접수 (www.karftc.or.kr)
	문 의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 담당: 성종명 사회복지사 (T.02-3143-6692~3)

* 코로나 발발 이후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01월~05월)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 공지

◆ 후원금

1. 수입 내역(총 수입금액 원)

(단위:원)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7,150,130	320

비지정후원 : 일반후원/CMS/(단체포함)
정*영3,성*명5,서*희,김*선3,전*민5,일신**씨4,전*일5,김*철5,김*욱5,이*수5,김*선4,한*희5,윤*영2,김*규5,심*웅,순극3,현*욱2,김*태5,조*호4,이*근5,양*승5,김*영5,윤*현5,황*순5,김*지5, 변*욱5, 박*석3,강*진2,김*수1
지정후원 : 일반후원(단체포함)
29명(건) / 113회 / 1,925,000

2. 지출 내역(총 지출금액 원)

(단위:원)

사용 내역	
상반기 지출금(1~6월)	
수용비 및 수수료	185,855
공공요금	1,173,300
여비	100,000
프로그램사업비	19,430
의료비	0
차량비	0
합 계	**1,478,585**

3. 2020년도 하반기 이월금(원)

(단위:원)

산출내역	
9,075,450 – 1,478,585=	**7,674,590**

◆ 후원품

1. 수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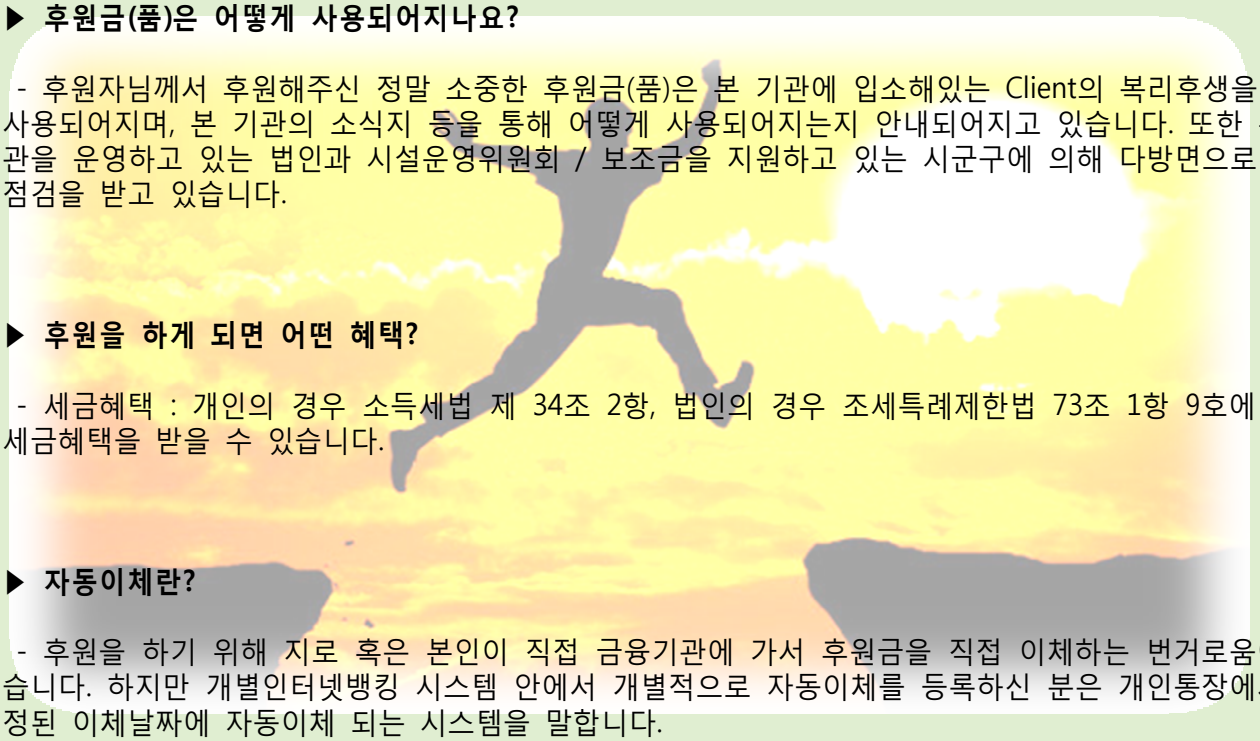
후원인	후원내용
마포구푸드뱅크 리치몬드제과(성산점) 라망베이커리 이법성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한국중독연구재단 마포구청(마포구보건소) 회정공동체(문*규) 캡보이 한국여성의집 유재원	쌀 빵 고기류 음료 떡 밥버거 건어물 가구(의자) 식자재 식사류 간식류 밑반찬류 과일(사과, 감, 복숭아, 오렌지, 배, 수박 등) 생필품 모자 세제류 화장품류 책 쟁반 그릇류 모자 수건 선물세트 음료 캔커피 과자류 초코렛 케익 등
	마포구청지원 코로나 19 방역물품

2. 사용 내역

구 분	사용내역
물품 사용 내역	- 감나무집 Client 주•부식으로 사용 - 감나무집 세탁실 및 주방에서 사용 - 감나무집 세미나실에서 사용 - 감나무집 Client 간식으로 사용 - 감나무집 행사 진행시 사용 - 감나무집 Client 피부 보습제로 사용
코로나19 방역물품	입소회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함.

후원안내

후 원 안 내	후원방법	본 기관 후원계좌로 후원자님 개인통장에서의 자동이체 CMS를 통한 자동이체 본 기관 후원계좌를 통한 직접 입금
		생필품, 공산품 등의 물품 후원 식자재(간식류 포함) 등의 음식물 후원
	입금계좌	비지정후원금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 1005-602-815159(우리은행) 476101-01-380273(국민은행)
		지정후원금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 1005-602-815123(우리은행) 476101-01-380260(국민은행)
	기 타 문의사항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 담당: 심현웅 사회복지사 (T.02-3143-6692~3)



▶ 후원금(품)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나요?

- 후원자님께서 후원해주신 정말 소중한 후원금(품)은 본 기관에 입소해있는 Client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어지며, 본 기관의 소식지 등을 통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안내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시설운영위원회 /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군구에 의해 다방면으로 지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 후원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

- 세금혜택 :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 34조 2항,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73조 1항 9호에 의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란?

- 후원을 하기 위해 지로 혹은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후원금을 직접 이체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인터넷뱅킹 시스템 안에서 개별적으로 자동이체를 등록하신 분은 개인통장에서 지정된 이체날짜에 자동이체 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CMS란 무엇인가?

- 후원을 하기 위해 지로 혹은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후원금을 직접 이체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가입(CMS)를 작성하신 분은 개인통장에서 지정된 이체날짜에 자동이체 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